

명품 행정도시 성공하려면*

김용웅 | 충남발전연구원장

지난 40여 년 간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발전과 압축성장으로 세계적 모범사례가 됐으나 아직도 도시환경은 조악하고 시설기반은 취약하여 주민의 삶의 질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도시는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명품도시로 건설될 예정으로 그동안 양적 팽창에 의존했던 건축과 도시개발 관행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도시는 명품도시로 탄생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도시 시설과 함께 녹지와 도시가 어우러진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명품 행정도시의 건설경험과 사례는 도시 및 공간의 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행의 변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미래 정주환경과 문화를 새롭게 정립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도시를 지식·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삶의 질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고 특화된 경쟁력과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기반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갖춘 명품도시모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첫째, 행정도시는 자연환경과 도시개발간의 조화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모형을 보여주어야 한다. 행정도시는 자연녹지나 공원 면적의 확대와 함께 대체불능 자원의 이용과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오염 및 폐기물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도시개발 및 관리모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글은 중도일보(2008. 9. 3)에 게재된 글을 정리한 것임.

둘째, 행정도시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역사와 전통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을 살리는 도시건축과 개발모형을 만들어 내야 한다. 한국적인 전통과 문화를 21세기 시대적 요구에 접목시켜 나갈 수 있는 공공 디자인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행정도시는 첨단기술과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행정도시에는 정보·통신 및 첨단기술에 기초한 도시기반과 운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행정도시는 지속적인 정보와 기술 혁신이 가능한 도시기반과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도시민 모두에게 동등한 참여기회와 삶의 질을 보장하는 포용도시모형을 제시해야 한다. 노인, 여성,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상대적 불이익 집단의 사회적 참여 확대와 삶의 질이 보장되지 않으면, 생산성과 효율성을 갖춘 명품도시 건설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행정도시를 통하여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이외에 행정도시가 명품도시로 되기 위해서는 도시환경과 시설 수준의 향상뿐만 아니라 중추업무도시로서 자생력과 경쟁력도 갖추어야 한다. 자생력을 갖춘 중추업무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행정도시에는 정부부처의 10배가 넘는 15만 명 이상의 민간중추업무 기능이 이전되어야 한다. 행정도시 건설이 국가균형발전과 함께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간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가적 경쟁력을 높이는 21세기 대한민국의 희망 프로젝트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